사교육의 현장 요비코우[予備校]

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에서는 자유롭지만 또 다른 형태의 입시 부담이 있는 곳이 일본이며, 유명 사립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음

□ 면접증후군이란?

ㅇ 한일 양국 간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부모들의 73%가 자녀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한편 일본 학부모들은 21%만 그렇다고 함

- 일본에서 대학을 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님
- 대학교육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그 필요성이 다소 약해졌으나 유명대학에 대한 진학 열기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음

ㅇ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일본 명문 사립 유치원은 같은 계열의 대학 진학을 보장하는 특징이 있음

- 일본의 양대 명문 사립대학인 게이오 대학과 와세다 대학이 그러함
- 이러한 명문 유치원 입학을 위해 일본 학부모들은 유치원 면접 시기를 전후해 '면접 증후군'을 앓기도 함
-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에서는 자유롭지만, 또 다른 형태의 입시 부담이 있는 곳이 일본임

□ 사교육, 주쿠(塾)와 요비코우(予備校)

ㅇ 한편 사교육에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입시학원 역시 일본의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데 주쿠(塾)와 요비코우(予備校)가 바로 그것임

- 최근 문부과학성의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0%, 중학생의 50%, 고등학생의 60%가 주쿠와 요비코우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- 아마도 우리나라와 일본만큼 거대 수험산업이 만들어져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며, 더욱이 일본과 같이 유명 사립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임

* 초등학교 재학생에서부터 로우닝(浪人, 재수생)에 이르기까지 합격을 위한 시간을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학생들이 보내고 있음

* 학교 수업만으로는 입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시험문제를 푸는 훈련을 받으면서 진학을 준비하는 것, 즉 교육이 아닌 훈련을 통해 진학을 하는 현실이 한국과 일본에서 펼쳐지고 있음

□ 일본은 학력사회?

ㅇ 수험전쟁의 이면에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또는 빨리 승진하기 위해 유명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'학력사회'라는 현실이 있음

- 물론 최근 일본에서 '학력무용론'을 주장하며 입사시험에서 출신대학을 묻지 않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음

ㅇ 한편 '공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버겁다' 거나 '학교가 싫다'며 6개월 이상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학생이 늘어나는 폐해도 생겨나고 있음

- 이들은 '히키코모리'라고 불리며 일본 인구의 약 1%에 해당하는 120만 명 정도가 '히키코모리'로 추산되고 있음

- 또한 등교거부 등으로 일반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대안학교 혹은 자연학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